대학 정원 16만명 이렇게 줄인다

대학구조개혁 '정성평가' 도입 2회 연속 '매우 미흡'땐 퇴출

대학구조개혁이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 줄이기로 하고, 구조개혁 첫 평가를 오는 11월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는 기존의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 위주로 바뀐다.

교육부와 정책연구진은 지난 30일 대전 한밭대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기본방향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평가등급에 따라 정원을 차등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1주기(2014~2016년) 정원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감축하는 등 모두 16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지 않지만 나머지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의 일부를, '보통'은 평균 수준 감축, '미흡'은 평균 이상 감축, '매우 미흡'은 대폭 감축이 이뤄진다.

미흡과 매우 미흡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매우 미흡 등급을 2번 연속 받으면 강제 퇴출된다.

이번에 공개된 평가지표는 10개 영역, 23개 항목, 36개 지표로 구성되며 특성화 영역은 별도로 마련된다.

평가영역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 선발 ▲교육과정 ▲학사 관리 ▲학생 지원 ▲대학 여건(시설, 인력, 재정) ▲교육 성과 ▲교육 만족도 ▲사회 기여 등이다.

각 영역별 배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영역의 경우 배점을 높게 잡을 방침이다.

2022년까지 3년마다 절대평가로 차등 감축

교육부, 36개 지표 초안 공개…공정성 확보 우려

이번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기존의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등 정량지표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과 여건을 고려한 정성평가를 정량평가와 병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구체적인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성평가는 각 대학의 여건이나 계열별 특성 등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취업률의 경우 지역 여건과 전공계열을 고려해 취업률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지역 내 기업 수에 따라 해당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면 이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인문계나 예체능계열 등 계열 특성도 고려한다. 다만, 추계예술대처럼 예술계열 위주로 구성된 대학의 경우 비슷하게 구성된 다른 대학의 취업률과 비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신입생 충원율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율이 적정한지를 살핀다. 지방은 대학 입학정원보다 고교 졸업생이 적고 수도권은 반대로 많은데 이와 같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입학자원,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학생 수 등을 계량화해 반영하는 방법과 지역별로 신입생 충원률을 비교하는 방법 등 복수의 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하지만, 정성평가를 어떻게 점수화해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성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평가단을 700여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라 주관적인 '정성평가'를 모두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위원이 공개될 경우 대학들이 최하위 등급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비를 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평가위원 연수, 매뉴얼 마련, 평가지표 구체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창구 마련 등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진의 연구결과와 함께 공청회 논의사항, 대학 협의체와의 협의 등을 종합해 11월 초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성천 광주일보 기자가 담양여중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 잘 쓰는 법'을 주제로 한 NIE 수업을 하고 있다.

"글쓰기 출발은 독서" 한국신문협, 담양여자중 NIE 강연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말로는 잘 하는데, 생각을 글로 옮기려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 17일 담양여자중학교 1학년 교실. 광주일보와 한국신문협회가 추진하는 NIE(Newspaper In Education·신문활용교육) 일일교사 초청 강연이 열렸다. 광주일보 문화2부 박성천 기자가 나서 '글 잘 쓰는 법'을 강연했다. 50명의 학생이 참석해 NIE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연은 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일상의 소재를 글쓰기로 연계하는 법에 초점을 뒀다. 글 쓰는 목적,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 실제 글쓰기 순으로 진행됐다. 취재 경험과 인터뷰 등 기자체험을 덧붙여 이해를 높였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문 사설이나 칼럼을 하루에 한 개씩만 꾸준히 읽으면 다양한 지식과 어휘, 글 쓰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습은 '가을'을 주제로 진행됐다. 가을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예상했던 것보다 다양했다. 학생들이 생각한 단어는 대명사뿐 아니라 형용사가 많이 등장했다.

곽희영 국어 교사는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공부뿐 아니라 진로와 적성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일상에서 손쉽게 쓸 수 있는 글쓰기 방법을 알려줘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skypark@

동신대 봉사동아리 싸이큐 회원들이 광주 월곡중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했다.

광주시교육청, 74개 연구학교 공개수업 다음달 11일까지

광주시교육청은 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74개 연구학교의 활동성과를 발표하는 '2014 연구학교 공개수업'을 개최한다.

연구학교는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 교육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유치원·초·중·고등학교 74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요청 과제인 국정도서 현장 적합성 검토, 디지털 교과서, 융합인재 교육, 정신건강 증진, 창의인성 교육, 다문화 교육, 탈북 교육 등에 대해 51개교에서 연구하고 있다. 또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희망교실, 기초학력 향상 등을 연구한 광주시교육청 지정 17개교, 에너지교육과 통일교육 등 타기관 요청 6개교 등 총 74개교다.

광주시교육청은 10월을 '공개 수업 참관의 달'로 지정해 유·초등 연구학교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중등 학교는 학교별로 수업인 끝난 뒤 오후 시간대에 공개수업을 한다.

공개 수업 행사에는 수업뿐만 아니라 세미나, 특강, 체험 연수 등이 함께 개설된다. 수업지도안과 보고서는 해당 연구학교와 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교육과학연구원 관계자는 "연구학교 공개 수업은 교사들의 수업 연구 문화를 정착하고 학생 배움 중심의 수업으로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며 "특히 교사들의 연대와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동신대 봉사 동아리 싸이큐 '우수 동아리상'

청소년 상담·지역 아동 센터 멘토 활동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Psy-Q(싸이큐)가 2014년 상반기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 우수 동아리(우수상)로 선정됐다.

싸이큐는 올해 초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학생 교육기부단 '쏙쏙 캠프'에 선정, 광주 월곡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자기 이해와 진로탐색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싸이큐는 2012년 3월 동신대 상담심리학과 일부 학생들이 "대학 선후배들이 전공지식을 활용해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심리학적 역량을 키우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지역에도 기여해보자"고 의기투합하면서 결성됐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왔다.

현재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18명의 멤버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광주YMCA,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멘토 활동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해왔다.

이번 수상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재난심리 UCC를 직접 제작해 한국상담학회 학생 UCC공모대회 대상을 수상했고, 2013년 동신대 교수학습지원센터 튜터링 최우수상, 봉사학습공동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소자본 무점포
사업자 모집

음식물처리기 신개념 제품!

가정용 | 업소용
일주일체험
무이자할부

-싱크대에서 즉시처리-

분쇄 · 분해 후
하수관 배출!
7일 사용 후 결정
국산 100% 합법!

■ 싱크대 일체형으로 분쇄, 분해 후 하수관 바로 배출
■ 환경부(2013-91)인증, KC인증 된 합법제품
■ KBS등 방송3사에서 보도 된 합법제품
■ 사용 및 유지관리가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 완벽한 내구성과 고장률 "0%" 철저한 A/S
■ 주방 환경(위생) 획기적 변신

음식물처리기 선두 기업
(주)편한세상 구입 및 문의 ☎ 061) 245-2457